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실무자와 함께 자라는 AI

코딩을 모르는 기획자가 1년 동안
회사 업무에 AI를 붙여 보며 만든
LLM 위키 카이 버전

AI가 자기 실수를 먼저 찾아낸 비율

46% → 58%

실제로 막은 오류

약 6,300만원

1년 동안 AX를 해 보고 내린 결론

AX는 왜 100%가 안 될까요?

AX를 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끝까지 가면
꼭 사람이 붙어야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저는 그게 **실무**라고 봅니다.

> **"이 지사는 보증금을 안 받기로 했다"**

> **"상품명 뒤에 붙은 이 표시는 이런 뜻이다"**

> **"매달 이 날짜엔 이 숫자를 맞춘다"**

이런 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일하는 사람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00% AX

말 한마디면 되는 회사

"새 프로젝트 해 볼까 하는데, 검토해 줘."

↓ AI가 회사 데이터를 전부 보고 정리합니다

- 장점과 단점
- 리스크
- 예상 순수익
- 지금 하는 사업과 비교

↓ 하기로 정하면, 그다음도 AI가 이어 갑니다

기획 → 개발 → QA → 업데이트

걸리는 건 **판단**입니다. 이건 실무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처음부터 다 알 필요는 없고,
실무자랑 같이 일하면서 그 판단을 배우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

LLM 위키 카이 버전

AI는 대화가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하며 알게 된 걸 업무 노트로 남기는 방법(LLM 위키)이 해외에 공개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1 한 번 짚어 준 실무는 AI가 먼저 챙깁니다

같은 실수가 다시 나오지 않게
AI가 스스로 그 자리를 보강합니다.

같은 실수를 막는 검사 2개 → 18개

2 AI가 얼마나 컸는지 숫자로 잽니다

제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셉니다.
AI가 자기 실수를 저보다 먼저 찾는 비율입니다.

46% → 58%, 목표 90%

3 맡기는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AI가 혼자 해도 되는 일이 기록을 근거로 늘어나고,
중요한 결정만 저한테 옵니다.

AI가 혼자 한 일 중 제가 돌려보낸 건 4%

LLM 위키 카이 버전은 이렇게 돕니다

같이 일할수록 우리 회사를 아는 AI



이게 계속 돌면

"새 프로젝트 검토해 줘" 한마디로

분석과 제안, 기획, 개발, QA, 업데이트까지 AI가 해냅니다

지금까지 만든 것

엔진은 두 종류입니다

기본 엔진 AI가 일하는 방식을 지키는 엔진

9월 30일 카이 버전으로 바꾸면서 이틀 만에 **6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매번 저절로 돌아갑니다.

업무 엔진 저랑 일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엔진

- **원본 정리 엔진** · 엑셀 원본을 관리 화면 데이터로 바꿉니다
- **입금 대조 엔진** · 통장 내역과 장부를 자동으로 맞춥니다
- **정산 검증** · 지사 정산 데이터를 50가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문자 발송, 회의 자료** · 데이터에서 대상과 내용을 뽑아 만듭니다
- **업무 검사 18개** · 같은 실수가 다시 들어오면 반영을 막습니다

이걸로 만든 것 · 정산·미수금·보증금 관리 화면, 세금 검증, 법무 문서 자동 작성, 고객용 앱 기획 (진행 중)

결과 ① 돈

이 AI가 다루는 돈

관리하는 계약
약 2,500건

반기 부가세 현금매출 산출
약 7억 9,500만원

월 세금계산서 검증 (34장)
약 1억 2,700만원

관리하는 미수금
약 3억 4,000만원

AI도 화면도 정상이라고 했던 오류, 막은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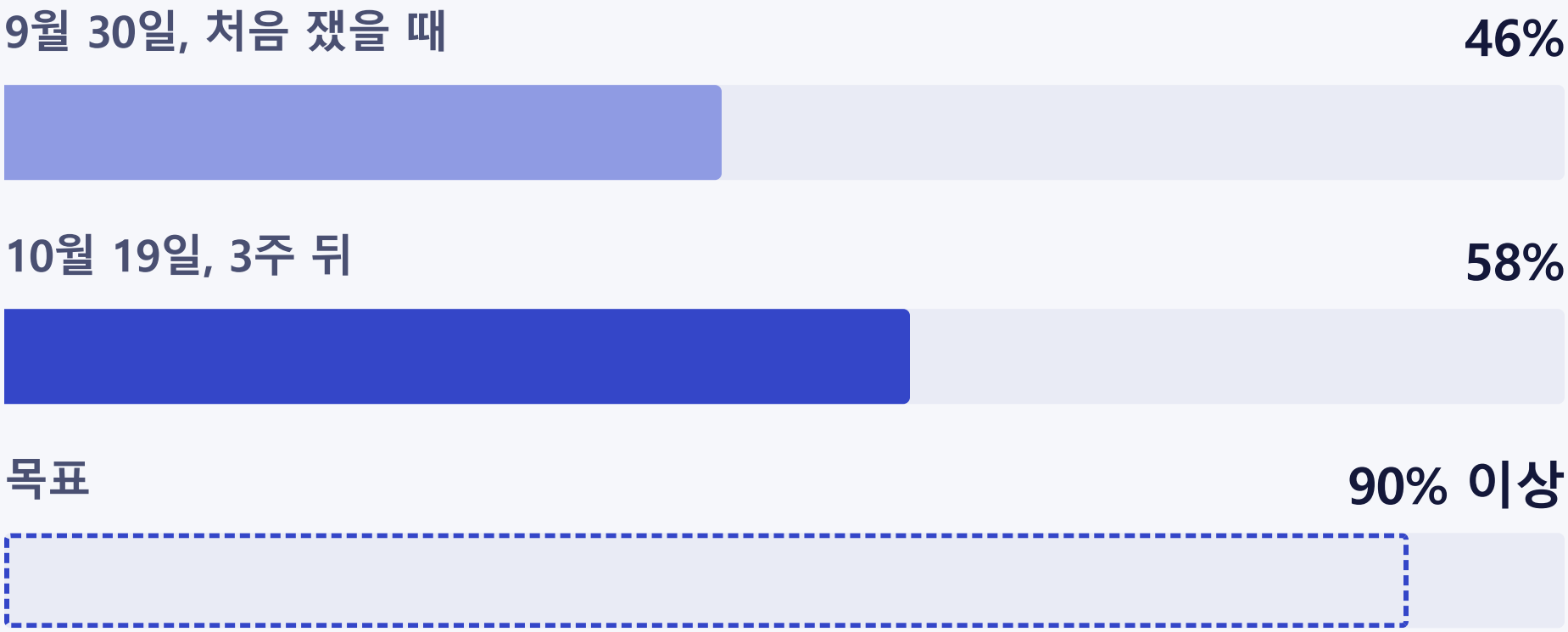
약 6,300만원

원본 표시가 빠져서 생긴 가짜 미수금 (반영 직전에 잡음)	**약 2,300만원**
시간 계산 오류로 이번 달 예상 매출에서 말일이 빠짐	**약 3,400만원**
파일을 1분 11초 일찍 올려 청구 1,847건이 다시 생김	**약 580만원**

지금은 같은 실수가 다시 들어오면 기계가 반영을 막습니다.

결과 ② 지금도 자라는 중

AI가 자기 실수를 먼저 찾아낸 비율



업무 검사 (반영을 막는 장치)

2개 → 18개

9/29 → 10/16 · 3주에 16개

기본 검사 (일하는 방식 확인)

10가지 → 30가지

9/30 → 10/19

4% 좋음

AI가 혼자 한 일 중 제가 돌려보낸 비율

실제 화면 · 성적표

숫자는 기계가 셉니다

AI가 얼마나 컸는지는 제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셉니다.
아래가 실제 성적표 화면입니다.

```
✅내가 스스로 알아챈 것              141건 / 242건 = **58%**
   카이가 짚어줘서 알게 된 것          101건
```

2026. 10. 20 실제 실행 화면

내가 AI 자신입니다. AI가 먼저 찾은 것 141건

카이가 짚어줘서 제가 먼저 찾은 것 101건

58%

242건 중 141건
9월 30일 처음 46% → 지금 **58%**
목표 **90% 이상**

왜 회사에 중요한가

실무자마다 하나씩 붙는 AI

AI를 몰라도 쓸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시키고, AI가 정리해 준 걸 읽고
틀린 걸 짚어 주면 됩니다. 저도 코딩을 모릅니다.

어느 회사에서든 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특정 회사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실무자랑 일하면서 그 회사에 맞게 자랍니다.

쌓인 게 회사 자산이 됩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판단 기준이 회사에 남습니다.
"새 프로젝트 검토해 줘"에 답할 재료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 안 된 것

- 아직 제 업무로만 키웠습니다. 동료 세 명에게 붙여 돌려 본 단계입니다.
- 다른 회사에서는 아직 안 써 봤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일할수록
우리 회사를
더 잘 아는 AI

저는 이게 100% AX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AI 성장률

58% → 90%

막은 오류

약 6,300만원